

지역 소식 통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 예산 확보 등 대응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는 27일 10월 중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해상풍력 육성정책 대응 2026년도 국가예산안 국회단체 확보, 취약계층 화재예방, 가을잠마 피해 대응 등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권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군의 RE100 국가사업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산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해 부안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며 “전 부서가 사업별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등 31일까지 신청 마감

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마감일(31일)이 임박하면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으로 군민활력지원금은 전체 지급 대상 5만646명 중 4만877명(96.4%)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총 97억 5500만원이 지급됐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 4만8379명 중 4만 6898명(96.9%)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총 46억8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신청 마감까지 모든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시설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에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랑과 기다림의 노래, 가을밤 물들여

제36회 정읍사문화제, 시민·관광객 호응 속 폐막

정읍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제36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송고한 사랑을 기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 제례부터 인

기 가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정읍사문화제는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10월 말부터 읍·면별 순차적 수매 진행’

부안군-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 간담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 검사관이 2025년 공공비축미 수매를 앞두고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부안군수, 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장외 검사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해 피해 농가 지원 방안

△수매 일정 및 품질관리 대책 △검사 과정의 애로사항 △수매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본격적인 수매를 앞두고 품질 검사에 참여하는 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 추진과 더불어 수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권익현군수는 “올해는 잦은 강우와 개췌무늬병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평가 검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1만6598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며, 10월 말부터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수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25만명 다녀가

대한민국 구절초의 성지 정읍에서 열린 제18회 구절초 꽃축제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절초 개화기인 10월 초부터 축제 기간까지 총 2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맛있는 정월 등 4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맛있는 정월’·‘작가

의 정월’·‘치유의 정월’·‘놀이와 정월’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유명 방송인들이 관광객과 어우러진 ‘명사 초청 콘서트’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소풍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의 먹거리·제품을 선보인 식당·특산물먹거리판매장 등 판매 행사에서도 우수한 품질·착한 가격



이 호평받았다.

축제 기간 현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은 15만㎡의 숲속 구절초 경관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붉은노을과 함께한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지난 26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변산해수욕장 노을 명소 자리매김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성료… 12만명 방문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붉은노을과 함께한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지난 26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는 레드와인페스타,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 제3회 부안붉은노을 동요제, 스카이밸러리 등 붉은노을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축제장을 찾은 12만 1천여명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에 주무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레드와인페스타’는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배치를 통해 와인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노을과 와인이라는 붉은노을축제의 컨셉을 제대로 전달했다.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재즈 뮤지션들이 감미로운 선율에 맞춰 다양한 곡을 선보여 변산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축제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제3회 부안붉은노을 어린이 동요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들의 싱그러움 목소리가 변산해수욕장을 가득 매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을 확인했다.

특히 3일 내내 이어진 불꽃놀이는 바다와 불꽃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고, 다양한 음악을 활용해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는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노을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다”며 “앞으로 부안붉은노을축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선운산, 단풍 등 가을 힐링 명소 인기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선운산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선운산 도솔천 산책길은 11월12일까지 짙은 단풍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전하는 감동을 전한다.

도솔폭포에 도착하면 폭포수가 떨어지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주변 단풍이 빛내내는 아름다운 풍경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도솔폭포 바로 옆에 만개한 코스모스 꽃밭에서는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사진 애호가,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운산은 가을 여행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고창군 선운산공원팀 관계자는 “선운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단풍과 코스모스가 어우러지는 이 시기는 가을 풍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장소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